

가검물을 통한 현장학습 기회 늘려



▲ 김기석 교수

1971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졸업
1984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
1974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원
1978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
199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
2003-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
2006-현 한국가금학회장

수의 전문 대학으로 발돋움

경북대학교는 지난 1946년 대구사범대학, 대구의과대학, 대구농과대학이 통합되면서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51년부터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.

수의과 대학은 지난 1954년 농과대학내 수의학과가 설립된 후 1956년에는 농과대학 부속가축병원이 세워졌고, 1988년에는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. 2003년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을 마련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이뤘다.

특히, 지난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6년제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인재양성을 꿈꾸고 있다.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에 입학하여 2년간의 예과과정을 수료한 후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진급함으로써 전공교과목을 교육 받게 된다. 본과 4학년동안 수의학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수의사국가고시를 거쳐 수의사 면허증을 부여받게 되며, 수의관련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.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고급



▲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건물 전경

인력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

닭 질병 전문가 교수로 영입

2003년 이전까지만해도 수의과대학에는 닭수의 전문 교수가 없었다. 하지만 2003년에 전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을 지낸 김기석 박사를 교수로 영입하면서 닭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.

김기석 교수는 동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,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김기석 교수는 1974년부터 가축위생연구분야에 검사원으로 첫발을 내딛고 1978년 가축위생연구소(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)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30여년 동안 양계 질병·방역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.

1970년대 말에는 당시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던 닭봉입체 간염을 국내 최초로 확인하고 그 진단기법을 확립하는 한편, 마이코플라스마의 진단기법을 확립하고 예방약을 개발하였다. 또

한 닭 대장균에 대해서는 자가백신의 개발 실용화를 이룩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특히, 전세계 양계산업에 경제적 피해가 가장 많은 닭 콕시듐병의 원충을 국내 처음으로 대량 순수분리기법을 확립하여 분자생물학적 연구 기틀 마련은 물론 최첨단 기법에 의한 약독화 생원충 예방약 개발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하였다.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92년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연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. 이후 가금티푸스를 국내처음으로 발생, 확인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외에 양계질병 연구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.

실전위주의 인재육성

김기석 교수는 연구시절 축적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후학양성은 물론 농가 및 양계 관련 업체의 질병방역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등 어느 때 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.

현장을 위주로 실습기회도 높여가고 있으며,



▲ 1년에 3,000건 정도의 가검물을 진단한다.
 ◀ 가금학 실험실



농가에서도 가검물을 수시로 의뢰하는 등 어느 연구기관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. 물론 학생들도 직접 닭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.

김기석 교수는 경상도 지역의 대부분의 농가를 상대로 의뢰가 들어오는 가검물에 대해 기본적인 혈청검사는 물론 부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질병을 진단하여 빠른 시간내에 알려주고 있다. 특히 계열회사인 올팜의 모든

농가의 가검물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올팜 수의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가검물은 모두 김교수 연구실로 몰려든다. 이렇게 처리하는 가검물만 해도 연 3,000건으로 하루에 최소 8마리의 닭은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셈이다.

김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질병중 ND, IB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아데노바이러스, 심낭수종 등도 종종 농가들을 괴롭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.

가금학회 등 대외적 활동

김기석 교수는 지난해부터 한국가금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금년 춘계심포지움을 닭질병에 관한 주제로 농가에 실질적인 내용으로 치러낸 바 있다.

김기석 교수는 산학연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. 따라서 가금학회를 운영하는데에도 현재까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학회가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산·학·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론과 정보를 발굴해내고 적립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, 가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과 수의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.

☆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 실험실
 문의 : 053-950-5962

취재 | 김동진 편집장
 dj@poultry.or.kr

